

### 공동체 소식



#### 사순 제1주일

전능하신 하느님,  
해마다 거룩한 성사로 사순 시기를 지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회개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 ■ 오늘은 '사순 제1주일' 입니다.

- 안내 : 사순시기 동안 Rice Bowl 기도 (미국 주교회의, 까리따스 주관)를 실천합니다.
- 방법 : 사순시기 동안 절제나 극기의 수행을 한 가지 정하고 매일 실천합니다. 그런 다음 매일 목주 기도 1단(해당되는 날의 기도)을 바치고, Rice Bowl 저금통에 1달러를 저금합니다.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개별적으로 실천합니다.
- 봉헌 : 주님부활 대축일 본날 교중미사 중.

####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안내

- 매 사순주일 교중미사 40분 전에 '십자가의 길 기도'를 공동으로 시작합니다.

#### ■ 반모임 안내

- 내용 : 반모임은 반장님의 주관 아래 모임 날짜와 회수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 맨해튼 공동체 미사

- 미사 : 3/11(토) 오전 11:30

#### ■ 로렌스 공동체 미사

- 미사 : 3/18(토) 오후 5:30

#### ■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 s Call to Share' 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 (<https://www.calltoshare.org/>)

####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118	613	178	123

#### ■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금 주	정예진 한나 김정원 안젤라	문호진 안토니오
차 주	문예나 요안나 정예진 한나	정예찬 미카엘

####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최은미 아네스	김화년 요안나	김명은 안젤라
차 주	김주연 세실리아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차 주	김명은, 한춘희, 장보혜

#### ■ 헌금 봉사자

금 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차 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우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우금
2/26일	60명	316달러	1,000달러
박동희, 이우석, 정수한, 김화년 (총 4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hin@daum.net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인간 본성이 원죄에 물들어 나약해졌음을 알고 계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하느님 말씀의 사순 시기의 여정에 나아가게 하시어,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말씀으로 악의 유혹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러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하느님께 간청합니다.

### 그림 묵상

#### 유혹의 도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종을 들었다. (마태 4,10-11)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광야에서처럼 최후의 순간 십자가 위에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늘 유혹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신뢰로 유혹을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바오로는 말합니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로마 12,21)  
-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2,7-9; 3,1-7  
<사람의 창조와 원조들의 죄>



-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5,12-19<또는 5,12,17-19>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총만히 내렸습니다.>

- 복음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1-11  
<예수님께서 사십 일을 단식하시고 유혹을 받으신다.>



### 유혹 이겨내고 아버지 뜻 따라



사순 첫 주일 제1독서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하느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고 죄를 범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1독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종종 하느님은 왜 선악과를 심어놓으셔서 인간에게 죄의 여지를 남겨 두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선악과란 하느님께서 인간이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피조물이기에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피조물이기에 하느님과 달리 넘지 말아야 할 선, 곧 제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유대인들은 선악과가 율법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창세기는 뱀이 유혹하여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뱀은 하느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 여인을 유혹합니다. 하느님은 분명 선악과나무를 제외하고는 “동산의 모든 나무를 따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창세 2,16) 하지만 뱀은 “하느님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였다는데 정말 이냐?”고 묻습니다.(창세 3,1) 그러면서 하느님 말씀을 시험해 보라고 유혹합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 누군가로 하여금 하느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것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유혹 사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악마는 시편 91,11-12를 인용하여 예수님에게 하느님 말씀을 시험해 보라고 유혹합니다.(마태 4,5)

예수님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지만, 첫 번째 여인은 넘어가고 맙니다. 여인은 하느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남편도 같은 잘못에 빠지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 1독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첫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이를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첫 사람에 대한 원망이 듭니다. 하지만 로마 5,12는 첫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모두”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곧, 모두에게 죽음과 고통이 주어진 이유는 첫 사람의 탓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첫 사람처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죽음은 첫 사람만의 탓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탓입니다.

첫 사람을 통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과 달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지만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모두에게 무죄 선언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공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희생으로 무죄 선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하느님께 충실히 살아갈 때 비로소 완전한 무죄 상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 시기가 될 때마다 우리는 특별히 기도, 자선, 단식을 통해 절제하며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자 합니다. 사순 시기를 맞이하는 지금 다시 한 번 아담과 하와가 걸었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었던 길을 함께 걸겠다고 다짐합시다. 세상을 죄로 물들게 했던 첫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은혜로운 선물로 세상을 가득 채우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나섭시다.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무죄 선언이 나쁜 것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두에게도 영원한 무죄 선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 엄철호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십자가의 길' 에 담긴 의미는?

추운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이하고 있듯이,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사순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 시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파스카 성삼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바치는 가장 대표적인 기도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바치는 기도입니다.

성당이나 성지, 공소에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14처'라고도 하는 십자가의 길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 후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열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 성화 또는 조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관행에 따라 양쪽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양팔이 묶인 채 처형 장소로 걸어가는데, 이 십자가의 무게는 34~57kg 정도 되는 횡목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초기 교회 시대에 예루살렘을 순례하던 순례자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형선고를 받으신 빌라도 관저에서부터 골고타(갈바리아)산까지 대략 1,317보(약 800m)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을 기억한 것에서 유래합니다. 이 순례지가 후에 이슬람의 영토가 되면서 성지 순례를 할 수 없게 되자 14~15세기에 이르러 유럽에서는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도시에 예루살렘의 거룩한 장소를 닮은 모형을 만들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단순한 순례가 아니라 신자들의 신심을 수련하는 기도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 가톨릭 신심행사 중 가장 널리 알려지는 예

식이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참혹한 죽음을 더 깊이 체험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처가 기념하는 예수님의 수난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기념하고 그 안에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부활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가장 먼저 동참하신 분은 성모님이시라는 교회 전승에 기인하여 우리는 어머니께 청합니다.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장



###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무엇이 중요한가'가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이다.

음식도 생명도 권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물어오는 것이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마태 4,4)

- 임의준 신부